

이미테이션 게임 & 스티브 잡스 감상문

🕒 작성 일시	@2023년 1월 15일 오후 7:33
🏷 태그	

줄거리

이미테이션 게임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

나치 독일의 영국 공습이 시작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공습으로 인해 런던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한편, 영국 정보부 SIS의 기밀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인터뷰를 보러 간 앨런 튜링(주인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십자가 퍼즐과 에니그마(독일 암호기계) 해독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을 받아들라고 한다. 결국 튜링은 셔우드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의 기밀 프로젝트에 소집되어

기밀 에니그마 해독 팀에 투입된다. 어렸을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사고 방식으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했던 튜링은 팀에서도 혼자 곁돌며 독자적으로 에니그마의 해독에 매달린다.

이내 기계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뛰어난 기계가 필요함을 깨닫고 해독에 필요한 기계를 설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제작에 10만 파운드라는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팀과 사이가 좋지 않던 튜링의 제안서는 팀장 휴로부터 매번 거절당한다. 항의하는 튜링에게 상관인 대니스턴 영국 해군 중령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명령, 규율, 지휘체계이며, 튜링은 큰 시스템의 부품일 뿐이니 상관의 말에 따르라고 일갈한다. 결국 튜링은 런던으로 향하는 MI6 요원에게 대니스턴의 상관 위치에 있는 윈스턴 처칠에게 편지를 배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의 편지를 읽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튜링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는 휴를 대신하여 팀장이 된다.

그 후 소련 첩자라는 의심을 받는 등의 많은 역경을 이겨내 마침내 '크리스토퍼'라는 에니그마 암호해독 기계를 발명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기밀리에 승리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공로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앨런 튜링의 업적은 기밀리에 묻혔고 당시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영국은 앨런 튜링을 동성애 혐의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한다. 이후 '몇 년 뒤,

튜링은 청산가리가 주사된 사과를 베어물고 자택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는 자막이 등장한 뒤 종전 직후 동료들과 즐겁게 기밀문서를 불태우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스티브 잡스

자유로운 영혼의 젊은 시절 스티브 잡스의 삶을 다룬 영화다.

맥킨토시, 넥스트, 아이맥 등의 런칭 발표회 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가족, 동료들과의 갈등부분도 면밀하게 다루어 준다.

대학을 자퇴하고 절친 스티브 워즈니악과 자신의 집 차고에서 '애플'을 설립해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 후 남과 다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시대를 앞선 사업가적 기질로 애플을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CEO로 거듭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혁신과 완벽주의를 고집하던 그의 성격으로 결국 동료들과의 갈등 끝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내쫓기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감에 사로잡힌다.

그리나 11년 뒤,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빈자리와 더불어 하락세를 걷게 되었고 그 사이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를 설립하여 또 다시 세상을 뒤흔들 혁신을 준비한다.

결국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복귀하여 맥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다

감상문

이미테이션 게임

사실 영화를 보기전 까지 앨런 튜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단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거대한 전쟁사로 생각했지, 그 뒤에 숨은 위인들의 공적들은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미테이션 게임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반성하게 해주면서도 많은 교훈을 남기는 영화였다.

2차 세계대전의 이러한 면밀한 역사적 사실도 배우면서 말이다.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컴퓨터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뭔가 인간의 삶을 더 쉽게 해주거나 유용한 도구로 생각할 것이다.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영화감상 후에

는 이러한 컴퓨터나 많은 도구들이 단지 사연없이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점도 느끼게 되었다.

Sometimes it is the people no one imagines
anything of who do the things no one can imagine.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하지만 영화를 보며 가장 크게 영감은 느끼게 해준 것은 이 명대사였다.

현재를 살다보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삶,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영원회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속으로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영화의 이 명대사는 그러한 내면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앨런 튜링이 저 한마디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역사나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깊은 울림과 교훈을 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한다. 단지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자신을 만들면 그 한계에서 머무르겠지만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남과 다른 나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인정하며 성장해 나간다면 인간으로서 누구나 세상을 바꿀 재능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 오랜만에 이러한 용기도 주고 많은 역사적 사실도 알게 해주는 영화였다.

스티브 잡스

1등과 2등은 겉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거야.

영화 스티브 잡스

애플사에서 해고된 것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성공이란 중압감에서 벗어나 초심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들어가는 자유를 주었다. -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기전에 스티브 잡스에 대한 업적과 삶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동료, 딸과의 관계까지는 면밀히 알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이 영화가 새로웠다.

스티브 잡스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나도 마찬가지로 정말 존경한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나 동료와의 관계를 अच्छ게 평가하는 글들이 많다. 객관적인 제 3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영화에서도 보여줬듯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 덕분에 지금의 이러한 예술적인 애플의 제품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의 친구인 워즈니악의 그러한 간절한 부탁을 냉정히 거절하거나 딸에 대한 냉정한 태도 등의 가족과 동료에 대한 모습은 인간적인 면에서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태도에 감춰있는 스티브 잡스의 완벽주의와 자기 자신의 확신은 지금의 애플을 만들었다.

“1등과 2등은 겉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대사처럼 그러한 냉정한 완벽주의가 더욱 그의 재능과 의지를 들어내주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영화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그의 경영적인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영화였다.